

침묵의 꽃



장려춘

수필집



현전민출판사

침묵의 꽃



장려춘

스튜디오



학
조
선
민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沉默的花/张莲春著.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6.3
ISBN 7-5389-1311-4

I. 沉... II. 张...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1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018391 号

书 名/ 沉默的花

著 者/ 张莲春

责任编辑/ 柳大植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880mm×1230mm 1/32

印 张/ 6.75

字 数/ 180 千字

版 次/ 2006 年 3 月第 1 版

印 次/ 2006 年 3 月第 1 次印刷

印 数/ 1-2 000 册

书 号/ ISBN 7-5389-1311-4/I·438(民文)

定 价/ 15.0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저 자 략 력

장련춘, 1971년 출생.
1994년 연변대학 조선언어문
학학부 본과 졸업. 2003년 할
빈사범대학 교육관리학부 석사
졸업.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할
빈시조선족제1중학교 교원으
로 사업. 흑룡강성조선족작가
창작위원회 회원.(한국)국제펜
클럽 회원.

《연변문학》운동주문학상
(수필부분 신인상), 흑룡강조
선말방송국 《박사첩》 교원수기
우수상, 《(중국조선족)북방시
단시가심포지엄》 시가우수상,
《중국조선어문》잡지 정음상 등
수차 수상.

심묵의
꽃



천묵의 꽃

머리말

내가 장런춘씨를 알게 된것은 7년전의 일이다. 석화시인의 소개로 나를 찾아왔던것이다. 우리는 선후배간의 간격을 지우고 숨김없고 솔직한 자세로 상대방과 작품을 대했기에 부동한 개성과 가치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생겼었는데 나는 이런 현상을 문학공간에서만 벌어질수 있는 정상적인 사례로 인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서로의 문학관은 점차 간격이 좁혀졌다. 부동한 풍격의 작품을 부동한 각도에서 부동한 척도로 썰줄 아는 관용의 지혜를 터득했기때문이었다.

그녀는 그후 수필창작에 전념을 했는데 알고보니 시창작이전에 이미 수필창작에서 일정한 성적도 올렸었던것이다.

그녀는 이미 발표된 수필작품중 가장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나에게 보여주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작품이었다. 내가 짐작했던것은 어디까지나 여성적인 섬세하고 감성적인 그런 풍격의 작품이었는데 그녀가 내놓은 작품세계는 복잡다단하고 철리로 장식된 경구들이 심심찮게 문장행간에 나타나는가 하면 안정할줄 모르고 요동하는 령혼의 정서활동을 보여주면서 사변적인 논리로 진행되는 작품이었다.

수필이 당당하게 문단의 한 장르로 굳어져 많은 사람



들이 수필에 손을 대고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그녀의 수필은 개성이 없고 전형적이 못되는 많은 수필작품과 명확히 구별되면서 흔하게 볼수 없는 하나의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있는 것이다. 더우기 그녀의 수필속에 시에서만 볼수 있는 빛나는 구절들이 있어서 수필의 정서적인 색깔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은 역시 긍정할바이다.

이외에 그녀가 쓴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단순구성의 생활수필은 학생들과 교원들 그리고 가장들의 가슴에 와닿는다.

교원생활에 얽매여 그녀는 항상 바쁜 몸이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피타는 노력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적지 않은 시와 수필을 발표했으며 이제는 책으로 묶게 되었다. 큰 박수로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앞으로 더 큰 성적이 있기를 바란다.

리삼월

2006년 1월 2일 할빈에서



차 례

머리말--리삼월/1

제 1 부 느낌으로 가는 길

가을에 기대여/3
겨울나무/5
사람의 향기/7
기다림/10
이른봄/12
시행착오/13
슬픔을 혼자 삭이는 비결/15
자라나는 탑/18
장백의 경치/19
생활의 위/21
용의 변화/23
녀자의 언덕/24

제 2 부 화원에 만발한 꽃

불행을 딛고 선 전국봉/29
대화를 먹고 크는 아이/35



잘못했는데 어찌나/44
 이것은 병이 아니야/51
 가슴아픈 일/57
 설문법배우기/63
 사랑하며 아파하며/67
 교원절선물을 받고/72
 감사의 마음 고마와/75
 잊을수 없는 주제반회/79
 최고보다 최선을/92
 남색에서 쪽빛을 내오기/96
 한국에서 온 학생/101

제 3 부 사상의 우물파기

어둠과 밝음의 극치/107
 풍경/112
 꿈/115
 나의 계절로 /118
 침묵의 꽃/122
 사람과 물/126
 홀로서기/132
 아이의 친엄마/135
 풍경이 있는 집/138
 사랑의 삼색도/140
 아리랑서정/147
 쓴 뿌리로 키우는 단 열매/154
 여드름타령/158



제 4 부 만남의 장

멀고도 가까운 명인과의 만남/163

기회는 어디에/172

열차에서 만난 사람들/177

스승의 가르침/182

독자의 편지/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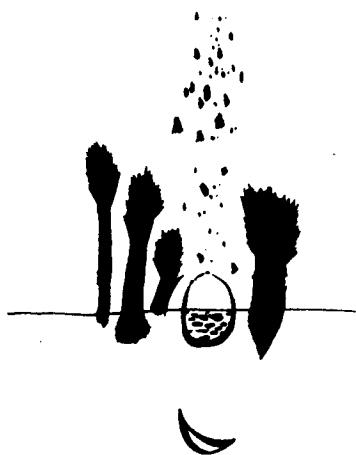
일본인친구/190

감자띠편집/193

선배/197

꿈의 파편을 모으는 사변적인 미학--한춘/201

제1부 느낌으로 가는 길



그래서 오늘은 정녕 고맙다
는 인사말 한마디 봉투에 넣어
부치고싶다. 바로 그러한 부동한
계절, 부동한 향기의 혜택으로 오
늘의 내가 추운 겨울을 음미하면
서 무겁지만 어둡지 않은 사색을
떠올리고 평범하지만 알찬 모습
을 꿈꾸는 푸근한 동면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던가.

가을에 기대어

가을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창너머로 바라보이는 산과 들은 진작 가을분위기에 묻혀있다.

무거운 머리를 간신히 이고 선 벼들의 숨찬 모습이 황금물결에 실려있는 무연한 논밭, 무도야회에 참석하려는 귀부인처럼 화려한 단풍드레스로 몸을 드리우고 나선 먼 산봉우리, 한없는 높이로 마음을 활짝 열고 푸름을 익혀가는 하늘, 그 하늘아래 오손도손 모여앉아 구수한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마을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가을인가? 정녕 질어가는 가을내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포로하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눈길을 멈추고싶고 그래서 발길을 멈추고싶고 그래서 마음을 멈추고싶은 가을이 아닌가?

《가을에 만나요.》

아름다운 약속을 아름다운 계절에 남겨두었던 먼 옛날의 목소리가 귀전을 울려온다. 가을을 기대하여 봄은 더 찬란했고 여름은 더 뜨거웠던 지난 계절들, 만남을 위하여 인고는 더 드팀없었고 노력은 더 끈질기게 이어졌던 나날들, 이제는 영영 꿈으로 남아있는 까닭에 더욱 아릿다울수밖에 없는 약속이 첫사랑의 향기를 실어온다.

추억의 향기속에서 가을을 마주서면 저도 모르게 기대



고싶다. 수확과 희망을 알뜰이 묻어둔 성숙의 함정으로 무작정 흡인하는 눈동자 같은 열매에 기대고싶다. 리별의 현장을 가장 진지한 피빛으로 가장 황홀한 금빛으로 축복의 꽃다발을 물들이는 잎새에 기대고싶다. 모든 걸쯔을 훌가분히 벗어던지더라도 두터운 속살로 겨울날 준비가 되어있는 믿음직한 나무에 기대고싶다. 아직도 식지 않은 태양의 숨결을 신고 시공을 자유자재로 산책하는 바람결에 기대고싶다. 바람만 보아도 욕망은 입다물며 저절로 차분해지는 여물어가는 사색에 기대고싶다.

꽃망울처럼 부풀지도 않고 별가마처럼 타지도 않으며 눈꽃처럼 창백하지도 않은 가을기분, 그것은 낮으나 힘있는 참사랑의 속삭임이며 멀지만 가까운 관심어린 눈길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지치지만 확실하고 드팀없는 발걸음이며 사무치지만 물리설줄 아는 여유있는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또한 떠나지만 영원으로 남겨지는 사나이의 영상이며 풀이할수록 풍부해지는 감정방정식이 아니겠는가!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을인가? 이 얼마나 기다리던 가을인가?

이렇게 잠간, 아주 잠간만 기대여있노라면 안녕하고 떠나가는 뒤모습이 보이는것 같다. 여느 계절과 마찬가지로 머물고싶지만 머물수 없는 가을이기에, 기댈수는 있지만 매여놓을수는 없는 계절이기에 유혹은 있지만 미련은 없으리라.

가을에 기대여 만나는련습, 헤어지는련습 상상으로 마음이 푸근해진다. 가을 같은 사랑, 가을 같은 인생을 그리여본다.

(2000년)



겨울나무

자박자박.

속살을 구르며 추위는 마음가까이 다가오고 잎새는 락엽으로 추억으로 나뒹구는데 나무는 영성한 가치를 떠인채 우두커니 서있다. 산듯이 죽어가고 죽은듯이 살아있는 모습처럼.

버릴건 다 버리고 잃을건 다 잃고 아쉬움마저도 떠나버린 알몸으로 비바람속에서 버둥거리며 게으른 낮잠을 청하는 겨울나무, 황홀한 남의 꿈으로 남아있는 이 계절을 동면하고픈 심정이 너무나 충분히 그려진 모습이다. 터실터실 꿈보투성이 줄기는 부끄럼덩이 그대로 비칠거리듯 열기설기가지는 피와 살을 잃고 꿈틀거리는 신경처럼 살아있어 혹독한 추위와 모진 시련을 속속들이 음미하는듯 나무는 그렇게 간신히 서있다. 저물어가는 생명인지 구원되어가는 죽음인지 자기도 모르는 운명을 고스란히 당하기만 하면서.

정녕 당하기만 하는 운명일까.

뿌리는 집요하게 머리를 흔들며 애써 마음의 고향을 찾고있다. 땡땡 얼어붙은 대지의 품을 허비적거린다. 결국 그것이 헛된 노력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부정당하고마는 바보노릇일지라도 혼자라도 기쁘게 나아가자.

아야야- 나 정말 쓰러지는거야? 나무가지의 세찬 흔들



림은 비참한 아우성을 아낌없이 토로하고 그 진동은 가는 뿌리까지 바르르 떨리게 한다. 기승을 부리는 북풍에 송두리채 뽑힐것 같은 나무의 신세이다.

무너지는 육체를 이리저리 추스르면서 뿌리는 무거운 신념을 가꾸어간다. 몸은 흔들려도 마음은 괴로와도 완성 못한 생명을 버리지 않는 말아야지.

아득히 그러나 여문 화답은 어디선가 쫓아와 뿌리의 신념을 더욱 살찌워준다.

- 겨울이 되었나니 봄이 멀소나.

그래서 오늘도 겨울나무는 꾸벅꾸벅 살아있는것일가. 산듯이 죽어가고 죽은듯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1996년)

